

제목: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0절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여기며 자주 잊곤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에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1. 은혜 받은 자가 당할 _____이 있습니다. (3-5절)
2. 은혜 받은 자가 _____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6-7절)
3. 은혜 받은 자가 얻을 큰 _____이 있습니다. (9-10절)

|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 |
|------------------------------|-------------------------------|
|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
|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
|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

| 지난 주 헌금 | |
|---------|--|
| 십일조 | |
| 주일 | |
| 감사 | |
| 합계 |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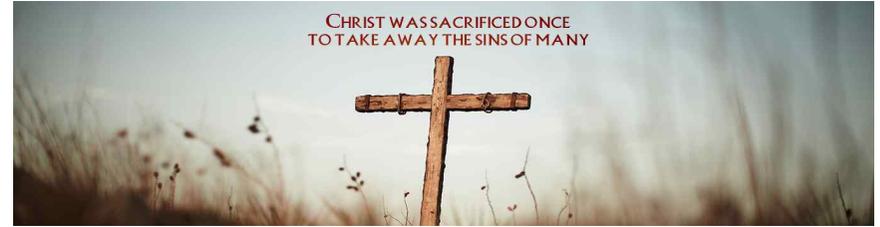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2 Corinthians 6 1-10 신약 292 페이지 Presider
- 말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True Christian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제임스 웹 망원경 JWST)

드디어 얼마 전 우주로 보냈던 제임스 웹 (James Webb Space Telescope)이 전송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한 중요한 놀라운 일이었다. 인간 역사상 처음 가장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과 은하가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빛의 속도로 36,000년 떨어져 있는 곳의 광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너무나 놀라운 도대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조차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 곳도 끝이 아니고 지금의 일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3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진으로 궁금증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멀리 보았지만 그곳도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답이라고 내 놓은 것이 그렇게 많은 은하들 중에 지구와 같은 곳이 하나도 없었나?는 가설이었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되었다.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일까? 그 중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고 이곳에 있는 것일까? 인간은 짧은 수명을 다 한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연 우주로 떠난 망원경이 그 답을 풀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알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며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 그 답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이 똑똑해 질수록 더욱 알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사편 34편 8-9절)라고 하신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

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을 더 많이 띄운다고 하여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었드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가 지나가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었드리는 삶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신기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니 천국이 더욱 궁금해진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 |
|--------------------|--|
| Deep Roots Church: |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백남일 선교사: |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
| 김인선 선교사: |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